chudosa.com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여러분, 그리고 제자와 동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박상민, 많은 이들이 상민 선생님이라 불렀고, 우리 집에서는 다정히 아빠라 부르던 그 사람을 땅에 온전히 맡기며 보내드립니다. 고인의 바람대로 단정하고 조용히, 그러나 마음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1955년 2월 14일 전주에서 태어나 전북대 사범대를 졸업한 그는, 중학교 과학 교사로 38년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원칙은 분명하되 마음은 너그러웠고, 꼼꼼함 속에 온화를 품은 교육자였습니다. 별자리 수업 동아리를 이끌며 밤하늘을 교실로 삼았고, 지역 과학축전을 기획하며 배움이 교정 밖으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수많은 제자가 그의 수업에서 과학을 직업이든 취미든 자기 삶의 언어로 삼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배우자 오미경의 남편으로서, 아들 박지훈과 딸 박나연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두 손주의 할아버지로서 한결같이 성실했습니다. 작은 약속을 허투루 하지 않았고, 정직과 배려를 삶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텃밭을 가꾸듯 사람을 돌보고, 서예처럼 마음을 다듬었습니다. 명절이면 손수 써서 건네던 캘리그라피 편지는 그의 체온이 스며 있는 위로였고, 낮은 목소리로 건네던 격려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가장 또렷한 장면은 여름밤 옥상입니다. 망원경으로 행성을 찾던 순간들, 별자리 신화를 들려주며 “이야기와 관찰이 만나면 배움이 시작된다”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실을 마주하지만, 동시에 그의 삶을 기립니다. 그가 남긴 것은 휘황한 업적보다 일상의 단단함입니다. 준비한 수업의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빌린 물건을 제때 돌려주는 습관까지, 약속을 어기지 않는 태도까지. 그런 정직과 성실이 우리에겐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의 뜻에 따라, 우리는 오늘 그를 조용히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망원경은 학교 천문반에 기증합니다. 아이들이 그 렌즈를 통해 다시 별을 만나고, 상민 선생님이 사랑하던 그 배움의 기쁨을 이어 가길 소망합니다.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

상민, 나의 남편이자 33년을 함께한 동반자여. 당신은 실로 우리 가정을 지탱했고, 배움으로 많은 마음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흙과 하늘 사이, 가장 고요한 자리에서 쉬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남긴 목소리로 서로를 격려하고, 당신의 손글씨처럼 또렷하고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별이 뜨는 밤이면 옥상에 올라, 당신이 가리키던 자리들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안녕히,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이 믿던 정직과 배려, 배움의 기쁨을 우리가 이어 가겠습니다.

이 추도사는 chudosa.com에서 작성되었습니다.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지금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를 생성하세요chudosa.com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